

電機工業의 貿易動向

李 愚 公
商工資源部 電機工業課長

1. 전체 貿易동향

금년도 上半期中 貿易動向은 輸出이 438억불로 전년 동기보다 12.5%가 증가하였으며 輸入은 473억불로 전년 동기보다 14.6%가 증가하여 輸入이 輸出보다 35억불 더 많아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輸出入 실적〉

(단위: 억불)

구 분	'93.1~6	'94.1~6
수 출(FOB)	389 (6.0%)	438(12.5)
수 입(CIF)	413(-1.5%)	473(14.6)
수출입차	△ 24	△ 35

日本 엔화의 價値상승으로 우리나라의 輸出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계류, 부품 및 소재 등 産業構造가 日本의 産業에 의존하고 있어 輸入費用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輸 出 動 向

금년도 上半期中의 수출동향은 '80년대의 輕工業 중심에서 重化學製品 중심으로 변모하여 이제는 重化學製品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輸出基盤을

다지고 있다.

최근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重化學製品의 경쟁력 향상과 輕工業製品의 대신진국 輸出회복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輸出增加 현황을 살펴 보면 '91년도에는 10.5%가 증가하였으나 '92년에는 6.6%에 머물렀고 '93년도에도 7.2%에 머물렀으나 금년 上半期에는 12.5%로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重化學製品이 규모 면에서나 增加率면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輕工業製品이 5%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1차산품이 17.3%란 놀라운 成長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製品別輸出 增加率〉

(단위: %)

구 분	'91	'92	'93	'94.1~6
전체 수출 증가율	10.5	6.6	7.2	12.5
· 중화학제품 (전기·전자)	17.3	11.7	13.0	15.6
· 경공업제품	1.7	- 0.9	- 2.3	5.3
· 1차 산품	2.5	- 1.5	- 2.1	17.3

上半期 수출동향을 살펴 보면 전체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가 증가하였는데 각 品目別로는 반도체가 60.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電子部品도 45.3%가 증가하였으며 선박이 38.9%가 증가하였고 일반기계는 23.8%, 電氣·電子 전체가 21.5%, 섬유직물이 20.5%, 기타 가죽·모피, 화장품, 금속제품, 타이어 등이 15% 이상 증가를 보인 반면에 신발은 -24.1%로 가장 저조하였고 컨테이너가 -21.9%, 철강제품이 -13.0%, 유류제품이 -11.7% 그리고 섬유제품도 -7.5%를 기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上半期 輸出動向〉
(단위: 백만불, %)

구분	선박	일반기계	전기전자			섬유직물	신발
			반도체	전자부품			
수출액 '93	1,635	1,463	9,477	3,404	5,307	3,573	1,241
'94	2,270	1,811	14,259	5,460	7,710	4,306	942
증가율	38.9	23.8	21.5	60.4	45.3	20.5	-24.1

금년 上半期中 輸出比重을 살펴 보면 重化學製品이 전체수출의 3분의 2 이상인 67.2%를 점유하고 있으며 輕工業製品은 전체의 28.8%, 1차산품은 3.9%를 점유하고 있다. 또 電氣·電子製品(重化學製品에 포함)은 전체수출의 32.1%를 차지하고 있어 電氣·電子製品이 輕工業製品 전체수출 28.8%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製品別 輸出比重〉
(단위: %)

구분	'91	'92	'93	'94.1~6
중화학제품(전기전자)	59.9 (28.0)	62.7 (28.2)	66.1 (29.5)	67.2 (32.1)
경공업제품	35.5	33.0	30.0	28.8
1차 산품	4.6	4.3	3.9	3.9

先進國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輸出比重을 살펴 보면 先進國에 대한 수출은 '91년에 62.2%에서 지난해는 52.2%로 떨어졌고 금년 上半期에는 50.7% 떨어져 先進國에 대한 수출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 技術開發을 통한 신상품의 開發과 商品의 고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國際競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은 '91년의 37.8%에서 '93에는 47.8%로 증가하였고 금년 上半期에는 49.3%로 증가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은 최근 몇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역시 우리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고 특히 중국의 급성장으로 2~3년 안에 우리나라를 따라올 것으로 보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先進國과 開發國에 대한 輸出比重〉
(단위: %)

구분	'91	'92	'93	'94.1~6
수출액 대 선진국	62.2	55.9	52.2	50.7
비중 대 개도국	37.8	44.1	47.8	49.3
수출액 증가율 대 선진국	-1.4	-4.1	0.1	9.3
대 개도국	38.0	24.3	16.5	16.0

輸入動向

금년 上半期中 輸入동향은 資材가 輸入을 주도하고 있어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잠재력과 輸出增大的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國際 원자재의 價格하락과 원유가의 저가유지에도 불구하고 輸入增加率이 전년대비 14.6%의 높은 成長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경제에 불안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輸入增加 現황을 살펴 보면 '91년에는 輸入增加率이 16.7%이던 것이 '92년에는 0.3%, '93년에는 2.5% 수준에 머물렀으나 금년 上半期에는 12.5%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자본재 輸入比重이 지난해의 -0.1%에서 22.1%로 크게 증가하였고 消費材도 지난해의 3.2%에서 19.4%로 급증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특히,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

증가율이 지난해의 3.2%에서 17.7%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製品別 輸入增加率〉

(단위: %)

구 분	'91	'92	'93	'94.1~6
전체 수입 증가율	16.7	0.3	2.5	14.6
자본재 수입 증가율	18.4	2.1	-0.1	22.1
소비재 수입 증가율	19.4	5.2	3.2	19.4

전체 수입중 原資材의 輸入比重은 전체의 50.8%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資本材도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고 消費材는 10.3%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3~4년간은 價格構造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製品別 輸入比重〉

(단위: %)

구 분	'91	'92	'93	'94.1~6
원자재 수입 비중 (원유)	53.2	52.0	52.9	50.8
자본재 수입 비중	10.0	11.7	10.9	8.4
소비재 수입 비중	37.0	37.7	36.7	38.9
소비재 수입 비중	9.8	10.3	10.4	10.3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에 대한 輸入比重을 살펴 보면 先進國에 대한 수입은 '91년에 69.8%에서 지난해에는 66.7%로 떨어졌으나 금년 上半期에는 67.5%로 다소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政府의 新經濟 5개년 計劃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開發途上國에 대한 수입은 '91년의 30.2%에서 '93년에는 33.3%로 증가되었고 금년 上半期에는 32.5%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본재의 대선진국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이며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比重은 향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上半期 輸入動向을 살펴 보면 전체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6%가 증가하였는데 각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이 전년대비 41.4%나 증가되어 가장 높은 輸入增加率을 보였으며, 섬유류는 31.4%, 電氣·電子製品도 22.5% 증가되었다. 또 기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에 대한 輸入比重〉

(단위: %)

구 분	'91	'92	'93	'94 상반기
수 출 대 선진국	69.8	66.3	66.7	67.5
비 중 대 개도국	30.2	33.7	33.3	32.5
수 출 대 선진국	14.4	- 4.8	3.2	17.7
증가율 대 개도국	22.2	12.2	1.1	8.7

계류는 21.2%, 농수산품은 11.7% 그리고 화공품이 10.9%가 증가되었으며 광산물은 전년동기 대비 11.7%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원유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원유만 전년동기 대비 17.6%가 감소하였다.

〈上半期 輸入動向〉

(단위: 백만불, %)

구 분	철강금속	섬유류	전기전자	기계류	농수산물	화공품	광산물
수입액 '93	3,275	1,423	6,736	9,272	4,808	8,032	7,027
'94	4,604	1,870	8,520	11,239	5,372	8,909	6,207
증가율	41.4	31.4	22.5	21.2	11.7	10.9	-11.7

2. 電氣·電子製品의 輸出入動向

輸出入動向

上半期중 電氣·電子製品의 수출실적은 총 輸出額 439억불의 약 32%인 143억불로서 단위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輸出실적을 보이는데 이는 輕工業製品 전체 輸出額 126억불보다 훨씬 많으며 重化學製品의 47.7% 점유하고 있다.

電氣·電子製品을 분야별로 보면 총 輸出額 143억불중 가정용 製品이 33억불로 23.4%를 점유하고 있고 電子部品이 77억불로 53.9%를, 産業用은 25억불로 17.3%를 점유하고 있는데 電子部品중의 반도체 단일품목이 55억불을 점유하고 있어 단일품목으로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94 上半期 輸入實績(1~6월)>

(단위: 백만불)

구 분	전 체	농수산	광 물	섬유·화학	철강·금속	기 계	전 기	기 타
수입액	47,324	50,372	6,207	10,777	4,604	11,239	8,250	841
비 중	100	11.4	13.1	22.8	9.7	23.8	17.4	1.8

<電氣·電子製品의 輸入實績(1~6월)>

(단위: 백만불, %)

구 분	총수입	전자부품	반도체		산업용	전기기기	가정용제품	기 타
			수출액	비 중				
수입액	8,250	4,401	2,918	2,353	983	453	6.0	
비 중	100	53.4	(35.4)	28.5	11.9	5.5	0.7	

<'94 上半期 輸出實績(1~6월)>

(단위: 백만불, %)

구 분	전 체	중화학제품		경공업제품	1차 제품
		전기·전자	반도체		
수출액	44,044	29,691	14,294	12,627	1,726
비 율	100	67.4	(32.4)	28.7	3.9

<'94 上半期 電氣·電子製品 輸出實績(1~6월)>

(단위: 백만불, %)

구 분	전기·전자전체	가정용품	전자부품	반도체		산업용	기 타
				수출액	비 율		
수출액	14,294	3,344	7,710	5,460	2,466	774	
비 율	100	23.4	53.9	(18.2)	17.3	4.4	

반도체의 메모리분야는 世界市場에서 日本에 이어 2위의 供給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4MDM과 16MDRAM 주류를 이루고 있다.

上半期중의 電氣·電子製品 수입실적은 총 收入 額 473억불의 약 17.4%인 83억불로서 輸入이 輸出보다 33억불이나 많아 대표적인 貿易黑字 品목으로 부상하였다.

電氣·電子製品의 분야별 수입실적을 보면 電子 部品이 44억불로서 전체의 53.4%나 점유하고 있으며, 産業用製品도 24억불로 전체의 28.5%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電氣機器로서 전체의 11.4%에 해당하는 10억불을 수입하였는데 가정용제품은 불과 5억불 미만이었다.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가 큰 역할을 담당한 반면 수입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총 수입의 6.2%,

電氣·電子製品 수입의 35.4%를 점유하고 있으나 반도체의 수출입 차액은 수출이 수입보다 25억불이 더 많다. 電子部品은 總收入의 9.3%, 電氣·電子製品 수입의 52.1%를 점유하고 있으며 産業用 電氣製品은 總輸入의 5.0%, 電氣·電子製品의 28.5%, 電氣機器는 總輸入의 0.2%, 電氣·電子製品 수입의 1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電氣機器만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3. 電機工業 製品의 輸出入 動向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적인 貿易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데 '91년에는 98억불, '92년에는 51억불 그리고 '93년에는 16억불의 貿易赤字를 내어 최근 3년 동안 貿易赤字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금년에는 약 75억불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年度別 總輸出入 現況>

(단위: 백만불)

구 분	'91	'92	'93	'94 계획	'94.1~6
수출(A)	71,870	76,632	82,236	87,450	44,044
수입(B)	81,525	81,775	83,800	95,000	47,342
차(A-B)	-9,655	-5,144	-1,564	-7,550	-3,298

이러한 貿易赤字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 電氣工業이라면 電機工業에 종사하고 있는

〈'94 上半期중 輸出入現況(1~7월)〉

(단위: 백만불)

구 분	총 계	중전기기	전 선	에어컨	축전지	소형전동기	건전지
수출(A)	902(100)	388(43.0)	204(22.6)	141(15.7)	112(12.4)	48(5.3)	9(1.0)
수입(B)	1,386(100)	1,140(82.3)	72(5.2)	2(0.2)	46(3.3)	85(6.1)	41(2.9)
차(A-B)	-484	-752	132	139	66	-37	-32

電氣人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 것인가?

電機工業分野의 貿易赤字는 '91년에는 약 8억 2000만불, '92년에는 7억5000만불, '93년에는 7억 3000만불이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8억9000만불로 예상되고 있다.

〈年度別 電機工業 輸出現況〉

(단위: 백만불)

구 분	'91	'92	'93	'94 전망	'94.1~7
수출(A)	1,141	1,273	1,413	1,569	902
수입(B)	1,961	2,027	2,144	2,455	1,386
차(A-B)	-820	-754	-731	-886	-484

지난해의 총 貿易赤字 15억6000만불 중 電機工業製品이 7억3000만불의 赤字를 보여 전체 貿易赤字의 46.7%를 점유하고 있는데 電機工業製品이 전체 輸出額의 1.7%, 전체 輸入額의 2.6%인 점을 감안한다면 電氣人들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질 것이다.

금년도 1~7월중 電機工業分野 輸出入동향은 1~7월중 총 輸出額은 9억2백만불이었고 그중 重電機器가 3억8800만불로 전체의 43.0%를 점유하였으며 電線은 2억4백만불로 22.6%를 점유하였고 에어컨이 輸出호조를 보여 1억4200만불로 15.7%를, 축전지도 1억1200만불로 12.4%나 점유하고 있다.

또 1~7월중 總輸入額은 13억8600만불로 그중 重電機器가 11억4천만불로 전체의 82.3%를 점유하고 있으며 電線이 7200만불로 5.2%를, 소형전동기가 8500만불로 6.1%, 축전지가 4600만불로 3.3% 그리고 건전지가 4100만불로 2.9%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 1~7월중에도 4억8천만불의 貿易赤字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도 重電機器 분야에만 7억5천만불을 기록하여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그대로 이끌어 가다가는 우리나라 重電機器産業이 市場開放과 함께 커다란 타격을 받아 경쟁도 해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電線은 業界의 노력으로 동남아 및 중국시장을 잘 공략하여 1억3200만불의 貿易黑字를 기록하였으며 에어컨도 미국 및 유럽시장을 잘 공략하여 1억4천만불의 貿易黑字를 기록하였다.

전선은 현재 특수제품을 제외하고는 國內製品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대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해 國產電線을 100%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電線業體가 國內市場을 잠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에어컨은 지난 2년동안 태풍과 우기로 인하여 國內需要가 크게 줄어 많은 在庫가 쌓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業界의 적극적인 수출노력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축전지는 工業先進國들이 점차 공해물질의 생산은 기피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축전지 製造技術이 국제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다.

輸 出 動 向

금년도 1~7월중 총 輸出額은 9억2백만불이었는데 세계 각국별 輸出現況을 살펴 보면 美國이

1억5600만불로 전체의 17.3%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日本이 1억1500만불로 12.7%, 中國이 9100만불로 10.1%, EU가 8천만불로 8.9% 그리고 홍콩이 7900만불로 8.7%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國別 輸出現況(1~7월)〉
(단위: 백만불, %)

구분	전체	미국	일본	중국	EU	홍콩	기타
수출액	902	156	115	91	80	79	381
비중	100	17.3	12.7	10.1	8.9	8.8	42.2

重電機器는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등이 수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변압기는 日本, 홍콩, 美國 등에 많이 수출되며 상반기 전체수출의 19.5%인 1억7600만불을 수출하였고, 변환장치는 대부분이 日本에 수출되었는데 전체수출의 4.5%인 4100만불을 기록하였고, 배전제어장치는 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되었는데 전체수출의 3.7%인 2900만불이 수출되었다. 전

동기는 輸出額이 3200만불로 싱가포르, 美國, 日本에 주로 수출되었고, 발전기는 輸出額이 2천만불로 美國, 獨逸 및 日本에, 전동공구도 輸出額이 1600만불로 주로 홍콩과 美國에 수출되었다.

電線은 中國, 홍콩, 日本, 말레이시아가 주 輸出國인데 中國이 전체의 30.4%를 점유하고 있고 홍콩이 10.4%, 日本이 8.3%를 점유하고 있다. 통신케이블은 上半期 전체 수출의 60.8%인 1억 2300만불을 수출하였는데 주 輸出國은 中國과 홍콩으로 中國이 통신케이블 전체 수출의 31.7%, 홍콩이 1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력케이블은 주로 中國과 日本에 수출되고 있는데 전체 수출의 31.1%인 6400만불을 수출하였고, 권선용전선은 전체 수출의 8.1%인 1600만불로 주로 말레이시아, 中國 및 싱가포르에 수출이 되었다.

에어컨은 주로 美國, EU, 대만, 홍콩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7월중에 1억4200만불이

〈重電機器 輸出現況(1~7월)〉

(단위: 천불)

구분	총수출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	전동기	발전기	전동공구	기타
일본	73,976	28,369	22,062	3,259	4,833	2,697	285	12,471
미국	66,671	19,031	9,724	2,953	7,402	10,092	4,692	12,727
홍콩	35,966	23,066	1,034	67	278	85	6,030	5,433
EU	25,674	14,851	881	881	1,841	4,163	31	3,026
중국	25,222	11,328	1,086	215	954	412	465	10,762
싱가포르	20,182	7,943	410	361	7,818	1,012	1,151	1,487
말련	17,663	5,373	170	8,768	1,599	42	100	1,611
대만	11,182	7,257	259	153	257	10	1,377	1,869
기타	111,090	58,714	5,176	16,386	7,503	5,269	4,562	13,480
계	387,626	175,932	40,802	33,043	32,485	23,755	18,693	62,916

〈電線 輸出實績(1~7월)〉

(단위: 천불)

구분	총수출	중국	홍콩	일본	말련	싱가포르	기타
통신케이블	123,945	39,601	17,543	3,510	9,128	4,972	49,091
전력케이블	63,526	18,796	2,766	11,799	553	3,963	25,649
권선용전선	16,467	3,583	870	1,522	3,496	2,798	4,198
계	203,938	61,980	21,179	16,931	13,177	11,733	78,938

輸出되었으며 그중 美國이 전체 수출의 25.1%인 3600만불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EU가 전체 수출의 21.3%인 3천만불, 대만 및 홍콩에 각각 전체 수출의 9.1%인 1300만불이 수출되었다.

<에어컨 수출실적(1~7월)>

(단위: 백만불)

국명	총수출	미국	EU	대만	홍콩	기타
금액	141.6	35.5	30.1	12.8	12.9	50.3

축전지는 주로 美國과 EU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1~7월중 1억1200만불이 수출되었다. 美國이 전체 수출의 15.8%인 1800만불, EU가 전체 수출의 13.2%인 1500만불, 日本에 전체 수출의 7.6%인 8백만불이 각각 수출되었다.

<축전지 輸出實績(1~7월)>

(단위: 백만불)

국명	총수출	미국	EU	일본	기타
금액	111.9	17.7	14.8	8.5	70.9

소형전동기는 37.5와트 미만으로 美國과 日本이 주 輸出國이며 1~7월중 4800만불이 수출되었는데 美國에 전체 수출의 43.8%인 2100만불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다음이 일본으로 전체 수출의 31%인 15억불이 수출되었다.

그리고 건전지는 주 輸出國이 美國인데 上半期中 총 輸出額은 7억불로 그중 美國에 58.9%인 4억불을 수출하였다.

<소형전동기 輸出實績(1~7월)>

(단위: 백만불)

국명	총수출	미국	일본	홍콩	EU	기타
금액	48.4	21.2	15.0	2.3	2.2	7.7

<重電機器 輸入實績(1~7월)>

(단위: 백만불)

구분	총수입	전동기	배전제어장치	변압기	전기용접기	전기로, 가열기	기타
일본	576	106	83	76	61	57	193
미국	224	19	44	11	33	27	90
EU	217	30	36	14	9	20	108
기타	123	23	15	24	10	4	47
계	1,140	178	178	125	113	108	438

輸入動向

금년도 1~7월중 電氣工業分野 총 收入額은 13억8600만불이었는데 國別 輸入現況을 살펴보면 日本이 전체 輸入의 49.4%인 6억8500만불이었고, 美國이 전체의 19%인 2억6400만불 그리고 EU가 17%인 2억3500만불, 中國이 전체의 3.6%인 5천만불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國別 輸入現況>

(단위: 백만불)

구분	계	미국	일본	EU	중국	기타
수입액	1,386	685	264	235	50	153
비중	100	49.4	19.0	17.0	3.6	11.0

重電機器의 輸入은 전동기, 배전제어장치, 변압기, 전기용접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전동기 및 배전제어장치는 日本에서 수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美國과 EU에서 대부분이 수입되었는데 전동기와 배전제어장치는 각각 1~7월 전체 收入額의 12.9%인 1억7천8백만불이 수입되었으며, 변압기도 주로 日本에서 수입되었는데 전체 수입의 9%인 1억2500만불이었고, 전기용접기 역시 日本과 美國에서 수입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수입의 8.2%인 1억1300만불이 수입되었다. 그 다음이 전기로 및 가열기로 이것 역시 日本 및 美國이 주 輸入國으로 전체 수입의 7.8%인 1억8백만불이 수입되었다.

電線은 주로 美國 및 日本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上半期中 전체 수입은 7200만불로서 그중 전력케이블이 3700만불로 전체 수입의 51.4%로 가

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통신케이블이 2600만불로 전체 수입의 36.1%를 점유하고 있고, 권선용전선은 9백만불로 12.5%를 점유하고 있다.

〈電線 輸入實績(1~7월)〉

(단위: 백만불)

구 분	총수입	일 본	미 국	E U	중 국	대 만	기 타
통신케이블	37	9	9	5	6	6	2
전력케이블	26	10	9	3	1	1	2
권선용전선	9	3	3	1	-	-	2
계	72	22	21	9	7	7	6

소형전동기는 대부분이 日本과 中國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금년 上半期중 8500만불이 수입되었으며, 그중 日本으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의 45.4%인 3900만불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中國으로 전체 수입의 23.5%인 2천만불을 수입하였고, 대만은 전체 輸入의 9.4%인 8백만불을 수입하였으며 美國에서도 약 5억불 정도가 수입되었다.

〈소형전동기 輸入實績(1~7월)〉

구 분	계	일 본	중 국	대 만	미 국	기 타
금 액	85	39	20	8	5	13

축전지와 건전지는 日本을 비롯하여 美國, EU, 싱가포르, 中國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축전지의 上半期 중 수입은 4600만불로 그중 日本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48.8%인 2200만불로 가장 많았으며 美國에서는 전체 수입의 20.9%인 1천만불이 수입되었고 EU에서도 13.9%인 6백만불이 수입되었다.

또, 건전지는 上半期 중 4100만불이 수입되었는데 그중 日本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1.9%인 2500만불이 수입되었으며, 美國에서는 전

〈축전지 및 건전지 輸入實績(1~7월)〉

(단위: 백만불)

구 분	총수입	일 본	미 국	E U	중 국	싱가폴	기 타
축전지	46	22	10	6	2	2	4
건전지	41	25	4	-	2	3	7

체의 10.1%인 4백만불이 수입되었고 싱가포르에서는 전체의 8.1%인 3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에어컨의 수입은 약 2백만불에 불과한데 日本에서 總輸入의 50%인 1백만불을 수입하고 있으며, 美國 등 몇몇 국가에서 조금씩 輸入하고 있다.

4.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각종 공산품들이 얼마나 輸出·輸入되고 있으며, 또 어느 나라에 어떤 품목이 얼마나 수출·수입되고 있는지를 대략이나마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에 50대 50으로 대등한 수준을 이루고 있으나, 수입은 開發途上國보다 先進國에서 2배 이상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先進國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공산품이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이나 광물까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電氣工業製品에 있어서는 美國과 日本에 輸出되고 있는 것이 總輸出의 29.9%인데 반해 美國과 日本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은 總輸入의 68.5%에 이르고 있다. 특히 日本에 있어서는 수출이 1억5600만불이고 수입은 6억 8500만불로 수입이 수출의 4.4배에 이르고 있으며, 日本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은 전동기, 배전제어장치 및 변압기로 이 세 품목이 電氣工業分野 대일수입 전체의 38.7%나 점유하고 있다.

電氣工業分野가 지난해 우리나라 총 貿易赤字 15억6천만불의 56.6%인 8억9천만불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지난해 電氣工業分野 대일 貿易赤字가 5억3천만불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貿易狀況을 우리 電氣工業人은 냉철하게 注視하고 또 反省하여 우리 모두가 技術開發과 輸出促進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